‘만신창李’ 책임총리 리더십 확보 관건

‘천신만고’ 끝 취임 이완구 총리 과제와 정국 전망

당·정·청 조율사 역할 수행 주목

새정치 반발 … 국회 법안처리 차질 예상

이완구 국무총리가 각종 논란과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맡게 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입은 이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정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갖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활성화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국정 현안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이 총리의 과제는**=무엇보다 이완된 내각 전반에 대해 총리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물러날 예정이던 정홍원 전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유임된 이후로 총리의 위상과 내각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는 개각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벌써 수개월째 공직사회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새 총리의 첫 번째 임무가 내각 통할과 부처 간 업무조율임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특히 ‘책임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로서의 장관 제청권 등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게 할 경우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연이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조율 기능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총리에게 맡겨진 중요 과제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이 연말연시 정국을 뒤흔든 데 이어 최근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이 대립 양상까지 빚으며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와 관련해 친박 실세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총리가 청와대와

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국은**=새정치연합은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면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나 오후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표결 자체가 국민의 뜻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는 싸늘해졌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대대적인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도 “야당은 물론 국민 의사에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새누리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허수아비 총리’ ‘반쪽 총리’로 규정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앞으로 발표될 개각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총리 인준 후 정국은 살얼음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반대 했건만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지지율 30%대 진입

리얼미터 조사, 박대통령 34.2% … 6주만에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 중반으로 회복했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9~13일 성인 남녀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p)를 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34.2%를 기록했다.

이는 연말연초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래 6주 만에 반등한 결과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8%포인트 하락한 58.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9%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정당 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3.3%포인트 올라 70%대를 회복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를 치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5.1%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37.3%로 보합세에 머물렀다.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진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6주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6.7%포인트 상승한 25.2%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야 차기 주자에 대한 지지율로 최고치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취임 3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이임 정홍원 총리 “더 큰 성공의 역사 만들어 달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2년간의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정 총리는 이날 이임사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우리 국민이 위대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심기일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큰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정부 초대 총리인 정 총리는 140개 국정과제 확정을 통한 국정운영의 틀 확립과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규제개혁 추진, 울진 원전건설 등 갈등과제 해소 등을 총리직 수행 기간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거둔 보람도 적지 않았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회한도 남는다.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하고 독려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며 “제가 이뤄낸 공이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안철수, 10개월만에 만났다

문대표, 통합행보 연장선

당 단합·혁신 협력 당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한길 전 대표와 회동한데 이어 16일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행사장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단독 회동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 당시 안 대표는 문 의원실로 직접 찾아가 6·4 지방선거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표가 취임 후 이어온 통합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사람이 대권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고 안 전 대표가 비(非) 친노 진영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에게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 화합을 위해 각 계파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 전 대표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으로 두 사람이 ’구원을‘ 풀고 관계회복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당시 경선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자신을 향해 “소주 한 잔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데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모양”이라고 언급,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2일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회동 후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나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 연합 관계자는 “문 후보가 통합 행보를 통해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하지만 통합의 진심이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

서구을 보선 출마

강은미(45·정의당) 전 광주시의원이 오는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8년간 지역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제1야당을 교체해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보살피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부자증세 복지확대로 서민의 살림살이를 지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후보 출마 기자회견장을 찾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이 서구을 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밀어주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